2024-02-19 (2024-08호)

02월 19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증시 방향 어디로... 中 변동성도 관건

서울, 2월1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중국 금융시장과 미국 주가 동향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들어 환율이 1,320-1,340원 안에 갇힌 가운데 금주도 이러한 거래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달러의 지지력은 한층 단단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AI 열풍에 따른 기술주 주도의 월가 랠리까지 달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달러의 뚜렷한 방향 전환 없이 달러/원 하향 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국내 반도체 업종과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따른 국내 주식에 대한 외인들의 러브콜에 원화도 일정부분 수혜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원화가 단기 방향성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상승 동력이었던 AI 대표주자인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국내외 증시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원화 움직임은 국내외 증시 동향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금융시장은 일주일 간의 긴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다. 연휴 전 여러 부양책을 쏟아낸 중국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2월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연준 정책회의록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 동결 예상이 압도적인 가운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외환수급이 대체로 균형적이라는 시장참가자들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외환수급 바로미터인 이달 20일 기준 무역수지 중간성적 결과가 나온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결제리스크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반갑지 않은 기념일**
오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시장은 초기의 패닉을 극복한 지 오래지만, 이 기념일은 전쟁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피해를 상기시키는 달갑지 않은 날이다.

인명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재건 비용만 약 0.5조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연간 경제 생산량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방 정부들은 침공 이후 매년 600억달러의 군사 원조와 400억달러의 예산 지원 등 총 1000억달러를 제공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는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 사라진 경기침체 리스크**
강력한 노동 시장을 갖춘 탄력적인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사라진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아직 중국 경제가 부진에 빠져 있고 강대국 독일이 유럽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지만, 22일부터 발표되는 전 세계 기업 활동 데이터(PMI)는 미국 이외의 지역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월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신 GDP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은 작년 말 경기침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23일 나올 독일의 4분기 GDP 데이터와 2월 Ifo 심리 지수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이외의 신흥 시장, 특히 인도와 중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월에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PMI는 2월에도 확장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증시 재개장, 대출우대금리 발표**
중국 증시가 일주일간의 춘제 연휴 후 19일 다시 개장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중국이 최근 타격을 입은 증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연휴를 앞두고 중국 당국은 5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한 증시의 추가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여기에는 리스크 억제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으로 '브로커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운 시장 규제 당국 수장을 임명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오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2월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 위안화에 대한 지속적인 역풍은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23일 발표되는 중국 주택 가격은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줄 것이다.

**⊙ AI 낙관론 속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난 한 해 동안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놀라운 상승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스토리였고, 그 주인공인 엔비디아가 오는 21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낙관론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작년에 세 배 이상으로 상승한 후, 올해 들어서도 약 50% 더 치솟았다.

엔비디아는 14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마존과 알파벳을 제치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주가 상승은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주요 지수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AI 전망의 중요성까지 고려할 때 엔비디아가 실망스러운 실적이나 전망을 내놓을 경우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英 은행들 실적 발표**
영국 최대 은행들은 2023년에 사상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는 재무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환호하지 않을 것이다.

HSBC, 바클레이즈, 낫웨스트, 스탠다드차타드, 로이드는 모두 합쳐 2007년의 최고 기록인 358억파운드보다 높은 516억파운드(648억달러)의 세전 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온라인 투자플랫폼 AJ벨이 추정했다.

하지만 시장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영국 은행들의 경우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은행들이 저축자들에게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하면서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높은 이자율은 현재로서는 은행의 수익 마진을 크게 늘려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모기지 가격 전쟁과 판데믹 시대의 영란은행 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은 향후 수익을 위협하고 있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엔비디아 실적, AI 낙관론 유지시킬까?

뉴욕, 2월19일 (로이터) -
이번 주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최근 몇 달간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인공지능(AI) 열풍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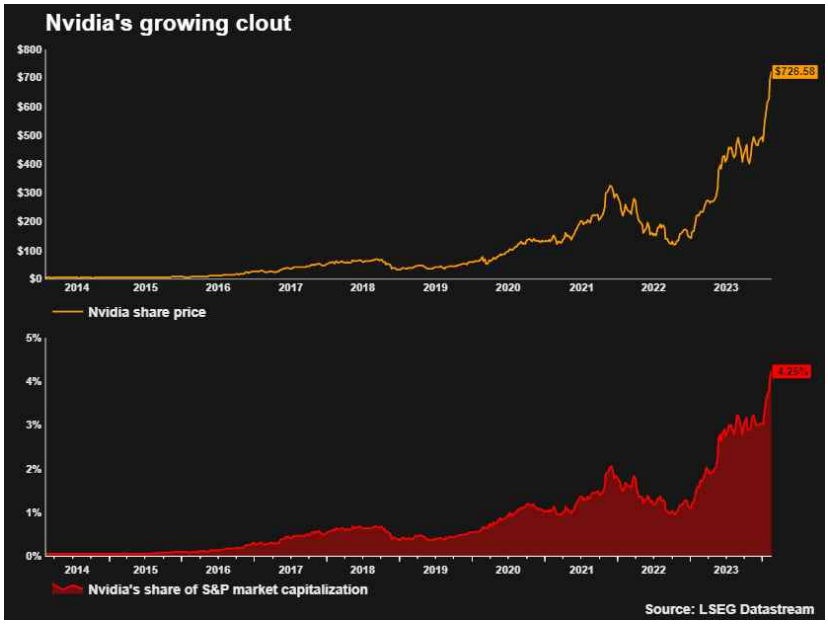
AI 비즈니스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1월1일 이후 46% 이상 상승했다. 시가총액 증가분 5,700억달러는 인텔 시장 가치의 세 배 이상이다. AI 업계의 표준으로 여겨지는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3년에는 240% 가까이 급등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올해 S&P500지수 상승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S&P500지수는 AI에 대한 낙관론 속에 작년에 24% 상승한 이후 올해 들어서는 5% 가까이 올랐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로 성장한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 외에도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82%, Arm홀딩스는 71% 가까이 상승하는 등 올해도 AI 관련 주식은 급등 중이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키스 레르너는 "사람들이 올해 시장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기술 부문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며 "AI에는 흥분이 가득하며, 이러한 낙관론이 실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빠르게 반향을 일으키고 심리를 압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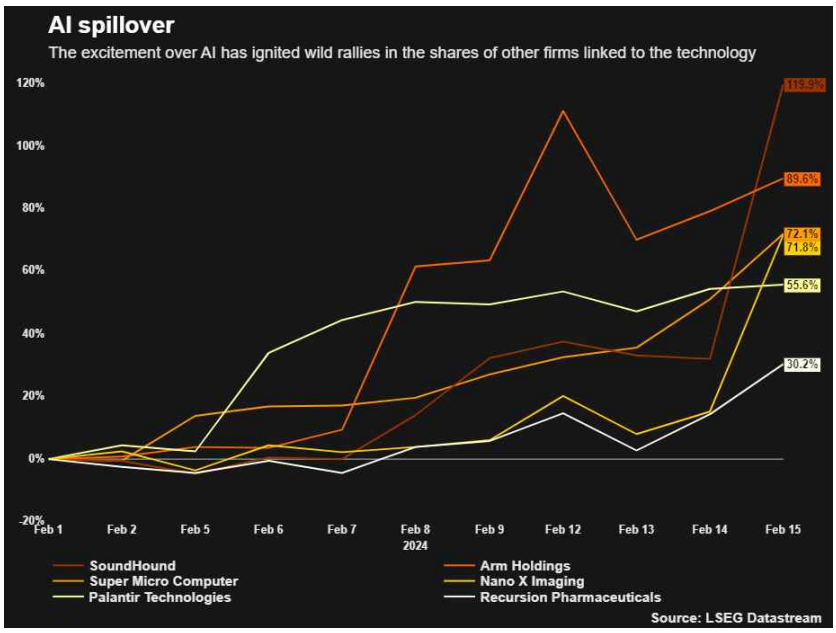



엔비디아는 오는 21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LSEG 데이터에 나타난 33명의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주당순이익은 4.56달러, 매출은 203억7800만달러(전년 동기 60억5,000만달러)로 각각 추정됐다.

퍼스트핸드 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케빈 랜디스는 엔비디아의 기업 규모와 AI 스토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심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할 때마다 이를 주도하는 인기 종목이 있다"라며 "엔비디아를 보지 않고는 전체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톰 헤인린은 엔비디아의 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업데이트가 AI 낙관론을 더욱 부추기고 엔비디아가 속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그룹에 집중된 시장 랠리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탈백켄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퍼브스 대표는 엔비디아의 실망스러운 실적 보고서는 대형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BofA 글로벌 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은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0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2월19일(월)
⊙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상장 (14:00)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5:00)

2월20일(화)
⊙ 한국은행: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 (10:00)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2월21일(수)
⊙ 관세청: 1~20일 수출입
⊙ 한국은행: 2024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한국은행: 2024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KDI: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12:00)
⊙ 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17:30)

2월22일(목)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통방) (09:00)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 (11:1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2월) (13:30)
⊙ 기획재정부: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월23일(금)
⊙ 한국은행: 2024년 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2월1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날짜 | 시간 | 국가 | 지표 | 기간 | 로이터 전망 | 이전수치 |
|---|---|---|---|---|---|---|
| 2월12-19일 | | 중국 | FDI (YTD) | 1월 | | -8.00% |
| 2월19일 | 08:50 | 일본 | 기계류주문 MM | 12월 | 2.5% | -4.9% |
| 2월20일 | 10:15 | 중국 | 대출우대금리 1년물 | 2월 | | 3.45% |
| 2월20일 | 10:15 | 중국 | 대출우대금리 5년물 | 2월 | | 4.20% |
| 2월20일 | 18:00 | 유로존 | 경상수지 SA, EUR | 12월 | | 24.600B |
| 2월21일 | 08:00 | 일본 |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 2월 | | 6 |
| 2월21일 | 08:50 | 일본 | 수출 YY | 1월 | 9.5% | 9.7% |
| 2월21일 | 08:50 | 일본 | 수입 YY | 1월 | -8.4% | -6.9% |
| 2월21일 | 21:00 | 미국 | 모기지마켓지수 | 2월12일 주간 | | 205.1 |
| 2월22일 | 00:00 | 유로존 |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 2월 | | -16.1 |
| 2월22일 | 09:30 | 일본 |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 2월 | | 48.0 |
| 2월22일 | 18:00 | 유로존 |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 2월 | 47.1 | 46.6 |
| 2월22일 | 19:00 | 유로존 |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 1월 | -0.4% | 0.2% |
| 2월22일 | 22:30 | 미국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2월12일 주간 | 217k | 212k |
| 2월22일 | 22:30 | 미국 | 전미활동지수 | 1월 | | -0.15 |
| 2월22일 | 23:45 | 미국 |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 2월 | 50.2 | 50.7 |
| 2월23일 | 00:00 | 미국 | 기존주택판매 | 1월 | 3.97M | 3.78M |
| 2월23일 | 10:30 | 중국 | 주택가격 YY | 1월 | | -0.4%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19일 (월)
⊙ 휴장국가: 미국, 캐나다

2월20일 (화)
⊙ 호주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오전 9시30분)

2월21일 (수)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주최 행사 환영사 (오후 10시)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재정클럽 오찬행사 토론 참석 (22일 오전 3시)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30-31일 회의 의사록 공개 (22일 오전 4시)

2월22일 (목)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웹캐스트 연설 (23일 오전 0시)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델러웨어대 경제교육센터 주최 행사서 연설 (23일 오전 5시15분)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줄리스-라비노위츠 공공정책연구소 연례 컨퍼런스서 연설 (23일 오전 7시)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네소타주 경제 성장 관련 토론회 참석 (23일 오전 7시)

2월23일 (금)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네소타 노트르담클럽·세인트토마스대 주최 행사서 연설 (오후 9시35분)
⊙ 휴장국가: 일본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칼럼) - 달러의 '미소'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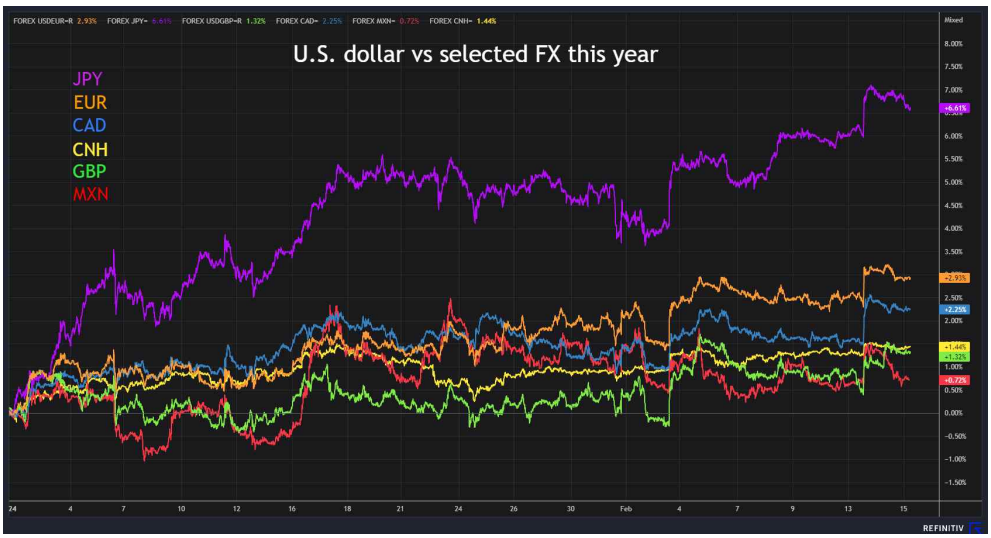
**※ 이 칼럼은 제이미 맥기버 칼럼리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2월16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공격적인 정책 완화에 나서리라는 기대가 돌아오거나 미국 주식이 강세 흐름에서 벗어나야 달러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외환 시장은 '달러 스마일'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달러 스마일'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한 모델로, 좋은 시기(미국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리스크 온 분위기에, 자산 수익률이 높은 시기)와 나쁜 시기(글로벌 위험 회피로 국내 자본은 현금으로, 해외 자본은 안전한 미국 국채로 몰리는 시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나, 그 중간 시기에는 부진하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중간' 시기는 보통 미국 금리가 하락세이거나 낮고, 미국 경제가 글로벌 상대국에 비해 저조할 때이다.




현재 달러는 '달러 스마일'의 양 측면에서 지지받고 있다. 스마일의 한쪽에는 중국의 시장 혼란, 일본과 영국의 경기침체, 전 세계 지정학적 긴장이 뒷받침하고 있고, 다른 쪽에는 다른 중앙은행에 앞서 정책 완화를 서두르지 않는 연준의 완고한 태도와 기술주 주도 월가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오랫동안 예상됐던 달러 하락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숏 포지션은 점점 가라앉고 있다.

게다가 외환시장은 상당히 느긋하다. 금주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3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랐지만 주요 통화의 내재 변동성은 2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월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달러는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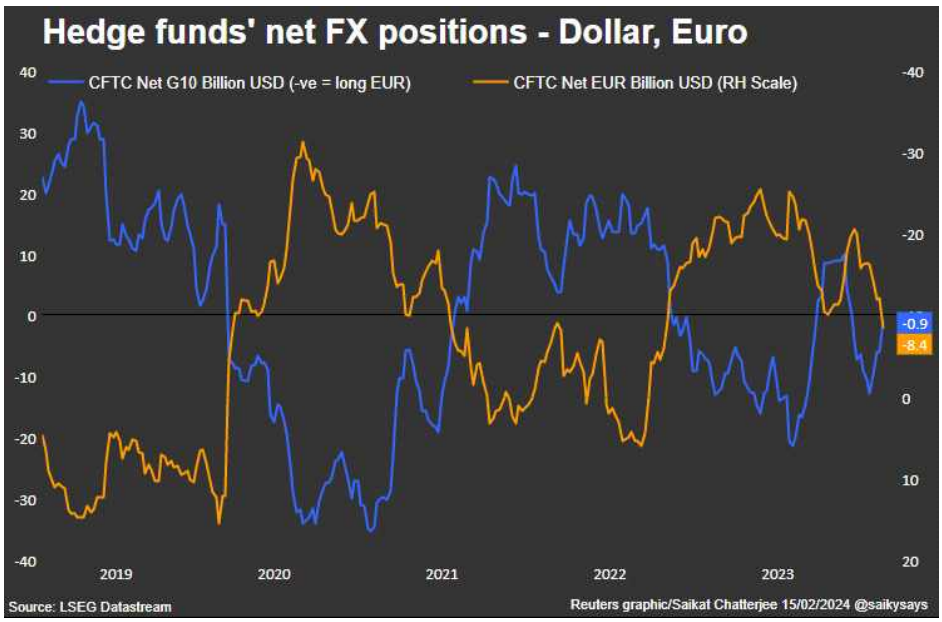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투자자 포지셔닝과 금리차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불안한 84억달러 베팅

JP모간, HSBC, 도이치은행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고객에게 다른 통화 대비 달러 매수를 권하고 있지만, 투기 트레이딩 커뮤니티는 아직 완전히 동참하지 않고 있다.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계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주요 10개국(G10) 통화와 주요 신흥국 통화 대비 여전히 달러 순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숏 포지션은 근 3개월 만에 최소인 10억달러 미만으로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펀드들이 특히 유로 대비 '롱'에 나설 여지는 충분하다.




펀드들은 유로 순 롱 포지션을 2022년 10월 이후 최소 규모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유로 강세 베팅은 84억달러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로존의 상대적 금리 기대가 달러에 더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베팅이다. 현재 금리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전망폭을 유럽중앙은행(ECB) 120bp, 연준 100bp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HSBC의 폴 맥켈 글로벌 외환 리서치 헤드는 "연준이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수익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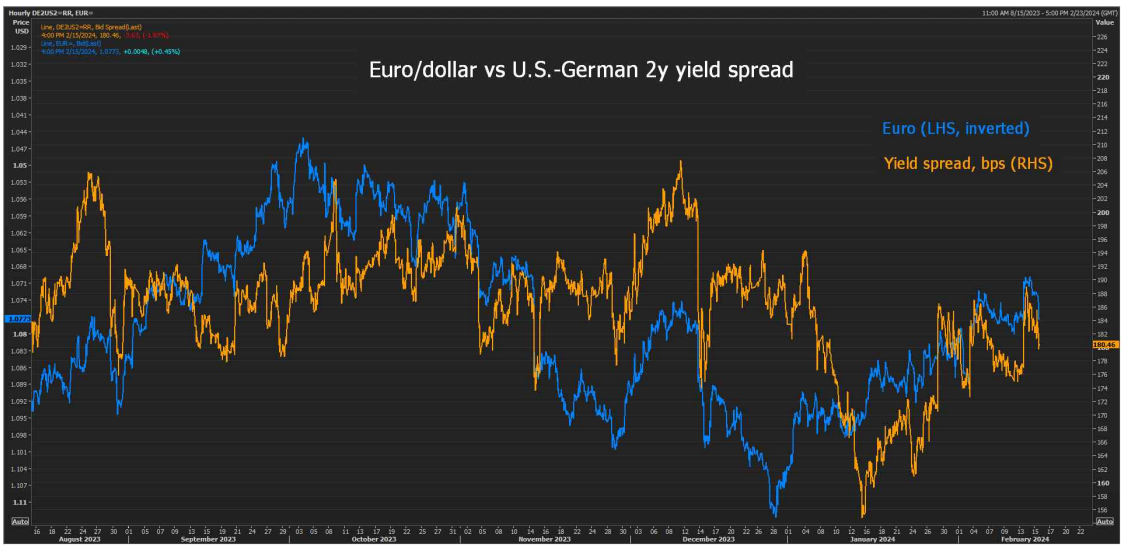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글로벌 성장이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달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유로 등가(Parity)?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금리 시장은 연준이 올해 3월부터 금리를 16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제는 6월부터 100bp 인하 전망으로 바뀌었다.

달러는 최근 주식보다 미국 금리 및 수익률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 움직임에 관계없이 채권 수익률과 함께 상승,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좁아지리라는 트레이더들의 전망이 '소프트 랜딩'이나 '노 랜딩' 시나리오와 같은 좋은 이유에서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불편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든 결과는 같다. 달러 강세다.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은 연준의 첫 움직임에 대한 달러의 민감도를 연준이 5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유로 가치가 1.05달러까지 떨어질 정도로 보고 있다.

JP모간 애널리스트들도 이에 동의하며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유로가 향후 몇 달 내에 달러와 1대 1 등가를 테스트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들은 지난 13일 "2024년 연준의 금리 인하는 최근 역사상 가장 동조화된 글로벌 완화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 수익률 스프레드는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연준의 도비시한 피봇만으로는 (달러에) 비관적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 - 지난해 獨 대중국 투자 사상 최고

베를린, 2월15일 (로이터) -
지난해 독일의 대중국 직접 투자가 4.3%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119억유로(127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해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IW연구소가 분석한 분데스방크의 공식 데이터에서 확인됐다.

이 데이터는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달라는 정부의 요청과 중국에 대한 투자 보증 급감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3%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독일의 직접 투자는 약 8%로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분석) - 美 국채 수익률 급등에도 증시 강세 막지 못할 것

2월14일 (로이터) -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주식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주식 대비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은 종종 주식에는 방해 요인으로 여겨진다.

지난 2022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속 수익률이 급등했을 때 S&P500지수는 19.4% 급락했고, 작년 수익률이 16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도 지수는 또다시 흔들렸다.

이러한 관계는 예상보다 강한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지표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축소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던 지난 14일에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주 만의 최고치인 4.297%로 급등했고, S&P500지수는 1.36% 하락 마감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이 수익률 추가 상승을 견딜만한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금리 상승에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화정책 긴축이 성장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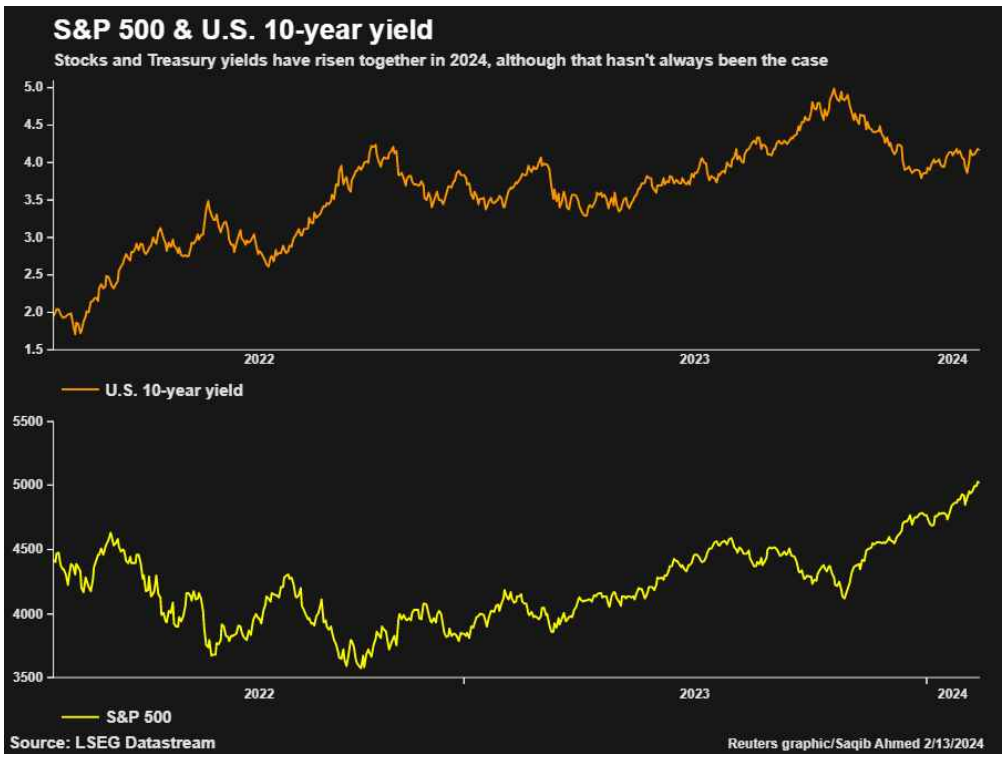
연준 금리 인하폭에 대한 전망은 축소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어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탈백켄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퍼브스 헤드는 "금리가 높다. 그러나 이는 경제가 꽤 좋은 상태임을 의미한다"며 "반면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덜 무섭다"고 말했다.

퍼브스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25~4.75% 레인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증시는 느린 속도이긴 하나 랠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난폭하지 않은 금리 상승이라면 시장과 경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주요 정책금리에 연동된 선물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올해 약 90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50bp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연준 정책 결정권자들의 지난 12월 회의 전망인 75bp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긍정적인 실적'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최근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도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 비중은 2년 만의 최고,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2022년 초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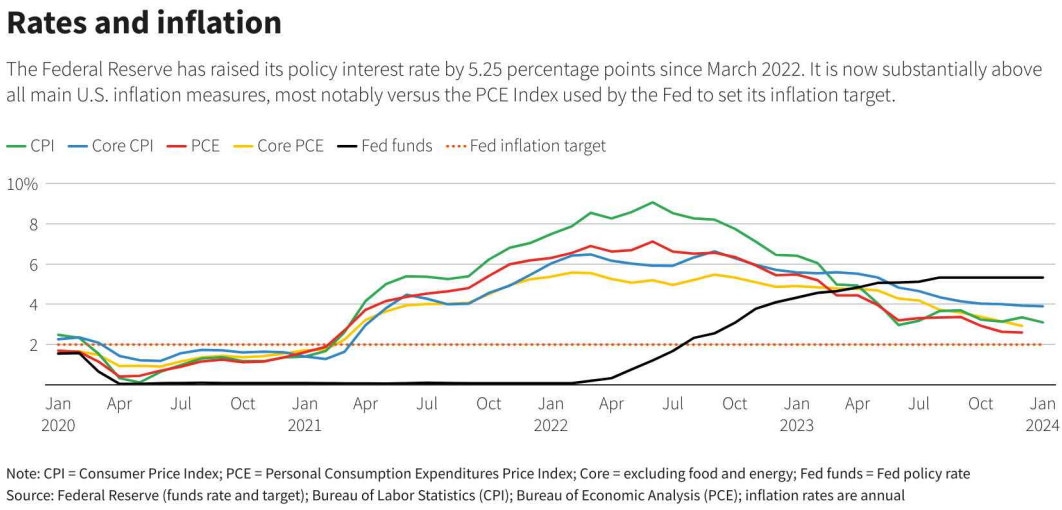
현재까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어닝시즌 역시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지난 9일 LSEG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 약 3분의 2의 결과를 토대로 본 S&P500의 4분기 실적 성장률은 현재 9.2%로, 1월1일 전망치(4.7%)의 거의 두 배로 나타났다.

블랙록의 웨이 리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어닝시즌이 꽤 좋았다"라며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섹터가 많았고, 이런 점이 금리 리프라이싱보다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수익률 상승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장이 이를 잘 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때로는 속도가 레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수익률이 계속 상승한다면 매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경제지표가 계속 강하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그린 심플리파이애셋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금리에 민감한 주식, 특히 부채 상환에 직면한 소형주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야뉴스 핸더슨 인베스터스의 라라 캐슬턴 미국 담당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전략 헤드는 주식시장 랠리에 대해 신중해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현금 보유분이 많아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고 이에 증시가 지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총 머니마켓 펀드 자산은 2월7일 기준 6조2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매수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현금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美 1월 CPI 전망 상회... 연준 첫 금리 인하 시기 늦출 듯**

뉴욕, 2월14일 (로이터) -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주택 임대료 급등으로 예상보다 큰 폭 상승했다.

이에 금리 선물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를 6월로 늦춰 반영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크리스 자카렐리, 인디펜던트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 최고투자책임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며 이번 물가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식과 채권 시장 매도세는 당연한 반응이다. 다음 보고서에서 낮게 나오면 이번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 퀸시 크로스비, LPL파이낸셜 수석 글로벌 전략가

"이번 보고서로 3월20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문제는 다음 일련의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5월1일이 (다음 금리 인하 시기로)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 러셀 프라이스, 아미리프라이즈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전체 보고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주거비와 임금 상승률이다. 연준은 천천히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오늘의 데이터와 지난 주 고용 데이터는 연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준의 메시지는 옳다고 생각하며,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메시지는 잘못된 것 같다."

◆ 마이클 그린, 심플리파이자산운용 수석 투자 전략가

"이번 CPI는 연준의 대응 속도를 훨씬 느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금리에 민감한 주식, 특히 부채를 리파이낸싱해야 하는 소형주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연준이 보게 될 데이터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불행한 상황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경제가 솔직히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수바드라 라자파, 소시에테 제네랄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주거비 상승률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주거 비용이 상승했다. 문제는 연준 정책의 경우, 특히 고용과 같은 다른 분야의 강세를 고려할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 중반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준이 행동해야 할 분명한 시급성은 없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계속 양호하고 경제도 놀랄만큼 상승하는 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면, 연준은 아마도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

◆ 브라이언 제이콥슨, 아넥스웰스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약간 높은 CPI는 투자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신감 게임이라면, 언제쯤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약간의 후퇴가 자신감을 약화시킬지 알 수 없다. 채권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피터 카딜로, 스파르탄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

"예상보다 핫한 보고서이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을 때 암시했던 것의 일부다.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무효화됐고 매파적 연준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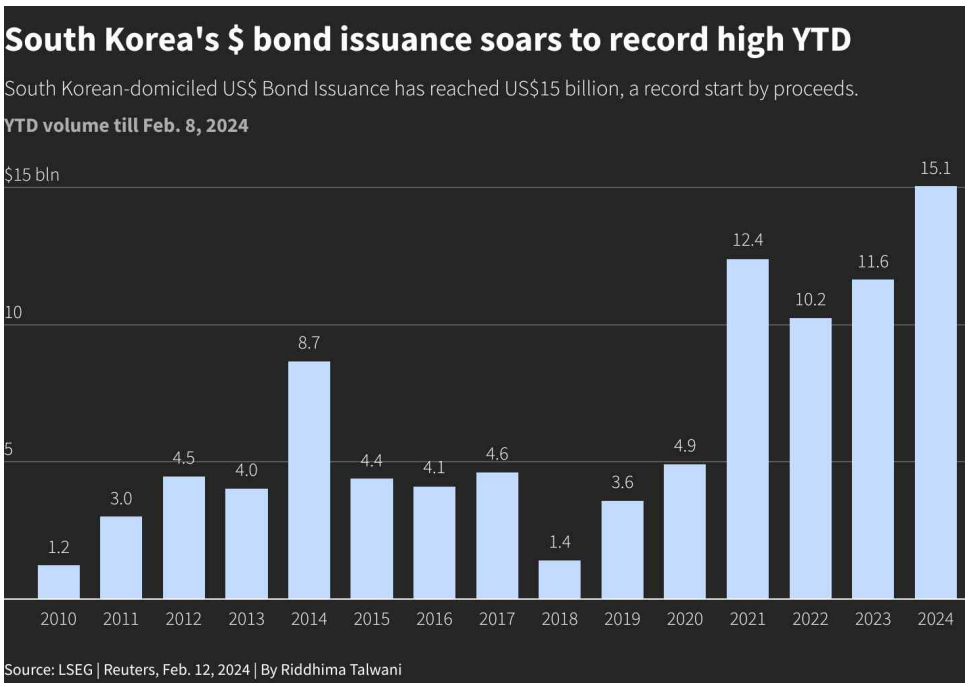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이 한두 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6월 (금리 인하)에도 작별인사를 하게 되고 9월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韓 올해 달러 채권 발행 규모 150억달러 넘어... 전년동기비 30% 증가**

시드니, 2월13일 (로이터) -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 발행 부족으로 인한 대안을 찾으면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한국의 달러 채권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1월1일 이후 150억달러 이상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1월은 전통적으로 채권 발행이 활발한 달이긴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채권 발행 이뤄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금리 상승 전망에 일부 한국 기업들이 2023년에 거래를 보류했지만, 다가오는 자금 수요로 인해 올해 거래가 다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의 역외 채권 거래는 달러 채권의 주요 발행처인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판데믹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HSBC의 아시아 태평양 채권 자본 시장 공동 책임자인 다니엘 김은 "한국은 여러 사이클에서 매우 호의적인 신용을 갖고 있다...한국은 AA 등급이며, 발행사는 AA, A 또는 BBB 카테고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과 매크로 노이즈가 많은 현재 환경에서 한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거래는 아시아 지역(일본, 호주 제외)에서 발행된 달러 채권의 44%를 차지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